

샘물처럼 맑은 사랑의 名文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할 수가 없다

고등학교 3학년. 입시라는 열열지옥에서 허덕일 때 30대의 그 독일어 선생님은 그러면서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방법으로 자꾸자꾸 서점으로 가보기를 권하셨다.

그러나 선생님의 그 말씀을 진실로 이해하게 된 것은 기실 그후로도 많은 시간이 지난 후였다.

그후, 일과처럼 나는 사랑을 찾아 시내의 서점을 드나들었고 그곳은 별들이 떠있는 하늘과는 또다른 나만의 우주였다. 향락과 물질문명의 극단으로 치닫는 배금주의의 혼탁한 풍토 속에 그래도 그곳은 아직은 안전지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없이 지천으로 쏟아지는 각종 도서의 홍수, 그것은 한편으로 기쁨이었고, 한편으로 슬픔이었다.

그래도 아직 책이란 것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까이 있음이 기쁨이었고, 그 많은 책들 속에 우리가 기꺼이 읽을 수 없는 많은 '惡書'를 보았을 때는 슬픔이었다.

그래서 한시간, 수시간 책을 고르는 일은 기쁜 고통일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어느 정도 자신의 생각을 갖춘 성인이라면 몰라도 이제 막 청춘의 풍성한 꿈을 가꾸어가는 소년소녀들에게 있어서는 '책 고르기'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도서출판 동쪽나라에서 출간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선택 집어들었을 때는 오롯이 기쁨뿐이었다.

국민학교 4학년 겨울방학, 울면서 울면서 만났던 「플란더스의 개」 파트라슈. 중학교

3학년 그 무더웠던 여름, 하기 싫은 공부를 하던 때에 단비처럼 내렸던 「소나기」, 고등학교 2학년, 검정고복의 단추가 닳도록 매만지면서 만났던 「별」의 스테파네트. 그 지워버릴 수 없는 얼굴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나의 유년시절부터 지금까지 내 가슴을 메아리치던 「나의 성장 연대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아, 저것! 그리고는 잔 물살처럼 가슴을 밀고오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들만의 모습. 사랑이 결핍된 이 시대에 산골짜 산골짜에서 흘러내리는 샘물같은 사랑 이야기들이다.

이제 막 자신들의 가슴 속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랑을 저축해야 할 시기에 있는 소년소녀들에게는 더없이 귀중한 '한권의 책'이 될 것이다.

그들의 저축된 사랑이 바로 우리 전체의 가장 큰 재산임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우봉규

인천시 북구 부개2동 477-5 동아Apt. 3동302호

자기애와 소유에 극복한 '공동'의 사랑

끌로드 모르강의 「꽃도 십자가도 없는 무덤」

끌로드 모르강의 「꽃도 십자가도 없는 무덤」은 작가가 포로생활 중이던 1941년 1월 독일 수용소에서 쓰기 시작하여 1943년에 완성한 것으로, 2차대전 당시 반독일 저항운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작가의 체험이 짙게 드리워진 작품이다.

2부로 구성된 이 책은 이야기의 전개가 명확하다. 즉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뚜렷하며, 바로 이 점으로 인해 모르강은 개인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작품이 흔히 갖는 한계를 벗어나 시공을 초월한 감동을 우리에게 안겨준다.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이론과 실제 · 실천, 남녀간의 미묘한 갈등은 공통의 문제이며, 사람들의 고뇌를 멈추게 하지 않는 주제가기도 하다. 모르강의 이 책은 전쟁을 겪는 장, 객, 끌레에르 세사람의 이야기가 주된 줄거리이지만, 이 작품이 감동을 주는 이유는 각기 다른 성향을 갖고 있고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한가지 일을 겪으면서 드러내는 모습을 그 외적인 모습뿐 아니라 외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를 충실히 묘사함으로써 그들의 고뇌의 원인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인 듯 싶다.

전쟁전 교사였던 장은 개인적이며 소시민적인 한편 부단히 사유하기를 즐기는 보통사람이다. 장은 전쟁중 포로수용소에 갇히면서 개인의 행복이 좌절된 고뇌와 고통에 빠진다. 한편 장의 아내 끌레에르의 오랜 친구이며 장의 친구이기도 한 객은, 투명한 정신을 소유한 음악가이자 실천가 · 행동가로 소유애와 사랑을 구분치 못하고 개인주의에서 허덕이는, 장과 대비되는 유형의 고독한 사람이다. 그리고 끌레에르. 그녀는 정신적으로 고양된 삶에

서는 장의 충실한 아내이다. 두 사람과 각기 다른 유형의 관계를 갖고 있지만 장과 객은 모두 끌레에르에게 필요한 사람들이고, 끌레에르는 이들을 사랑한다.

제1부는 포로수용소에서의 장의 생활모습으로, 장이 이곳에서 우연히 재회한 객의 영향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그린다. 제2부는 끌레에르의 내면세계를 드러내는 그녀의 고백과 집으로 돌아와 저항운동에 참여하는 장의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을 죽일 수는 있지만 사상은 절대로 죽이지 못한다”고 외치는 모르강은 이 작품을 통해서 다음의 메시지를 남기고 싶어한다. “인색한 자기애도 아니며, 만족할 줄 모르는 소유애도 아닌, 서로 나누어 가지려는 노력, 공통의 세계관, 보다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관념 위에 쌓여지는 사랑. 자유로부터 격리되지 않고, 삶의 유일한 이유인 사랑. 사람들이 매일 노래를 흥얼거리며, 죽음과 형벌에 맞서서 기관총과 탱크 앞에 몸을 내던지는 것은, 오직 이 사랑 때문인 것이다. 민중의 악을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사랑 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통일을 실현하고, 자기 충실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기꺼이 죽어가는 이유도 바로 이 사랑 때문인 것이다.”

현실과 이념 속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주저없이 권하고 싶은 책이다.

김봉인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3동 787-4호 · 회사원

출판·편집계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90 춘계 언론 취업반 모집요강
편집자, 기자, 레이아웃터,
교정자, 카피라이터

※ 수강예약기간: 9월 22일
무료공개특강: 9월 22일
수강대상: 고졸(예정자) 이상, 전문대, 대졸

엘리트편집인 전문양성 교육기관

한국편집디자인센터

서울시 동작구 노랑진동 73-3 (인성빌딩 2F)

(代) 812-1715 ~ 6
취업인력 정보실 FAX. 814-3387

이삭을 줍는 것을 배웠습니다.
구슬같은 그 이삭을 보배로
깨어야 하는 인내도 배웠습니다.
가끔은 낮과 밤 구별없는
일과의 싸움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칼날같은 업무를 하는,
그러나 자상하신 편집장 님도 만날 것입니다.
진정 활자밥을 먹겠다는,
그리하여 오직 한 길을 가고픈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저희들을 채용해 주신 출판·편집계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 드리겠습니다.

사람 사랑하는 일의 아픔

이경자 장편소설 「머나먼 사랑」

한 권의 소설을 읽으며 생각한다. 소설을 쓰면서 작가는 무엇을 찾고 있었을까? 그 소설을 무려한 독자들에게 선물하면서, 그는 다 읽은 독자의 표정에서 무얼 발견하기를 기대할까? 이경자씨는 이번에 「머나먼 사랑」의 후기에 또렷하게 진술한다. “소설가는 무엇보다 먼저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그리고 이어 소망한다. 그가 세상에 내보내는 호균, 지수, 계옥이라는 인물들이 독자들의 삶 속에서 한 몸이 되기를.

그래서 그런지, 얼마전 세인의 입에 오르내렸던 여성문제 연작소설 「절반의 실패」에 비해 이번 작품은 제법부터가 다분히 유치하고, 분위기도 감성적이다. 쉽게 읽히는 연애소설의 모범답안을 의식한 듯, 특별히 호감이 길거나 주장이 강하거나 세밀하게 다듬어져 있지 않다. 만약, 하나의 장점-평이한 구성과 일상적인 사랑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구석구석에서, 사실은 매우 진지한 ‘사랑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마저 발견할 수 없다면, 「머나먼 사랑」은 쉽게 통속적이라는 판결을 받았으리라.

결국,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이야기가 작품의 내용이다. 첫사랑처럼 서로에게 빠져들고, 스스로를 열등감의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것이 또 있을까. 독자들은 한숨을 쉴 테지만, 인물들의 이면에는 절은 우울함이 뜻밖에도 드리워져 있다. 호균. 그는 웹프, 밀수꾼 밑담배, 마약사범 전과자, 그리고 끝내는 간첩의 접선을 도와준 댓가로 밀항을 준비하다 잡혀, 국가보안법으로 오랜 세월 감방에서 보낼 것이 틀림없는 청년이다. 그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고상한 말앞에 코를 풀고 싶을 정도이다. 그의 상대역은 누구인가. 흔한 연애소설의

여주인공처럼 섬세한 감수성을 지닌 지수는 남과간첩의 유복녀이다. 그녀는 어머니에 의해 회색빛 세상을 보지 못하며 곱게 컸지만, 계옥이라는 이름의 어머니는 다르다. 호균의 체포 소식 앞에서 계옥은 참담하게 엉덩방아를 찧는다. 간첩이란 지긋지긋한 굴레에 발목을 붙잡힌 딸을 보며 그녀는 생각한다. ‘땅만 보고 살아온 세월 동안 무엇이 달라졌지?’

「머나먼 사랑」에는 이 세상의 어두운 상처들이 득시글댄다. 간첩, 불고지죄, 밀항, 마약, 매춘, 형사의 썩나플 등등. 그러나, 이 소설의 또 하나의 장점이 있다면, 이토록 지독한 실타래를 푸는 데 소재주의(인제나 그렇듯 상업주의로 나아가는)나 소리만 높은 웅변조의 양갈날을 배제하려고 애썼다는 점이다. 그래서 호균, 지수, 계옥이 각각 흘리는 눈물 속에서 우리는 사람됨의 값어치를 엿보게 된다.

“엄마! 난 그 사람을 믿어요! 간첩이 뭐야? 난 사람을 사랑한다구!”

호균의 체포가 이야기의 끝은 될지언정, 이들에게는 고통스런 삶의 본격적인 출발선이 될 터이므로, 일단 작가의 의도는 성공한 듯싶다. 그 첫번째 시도에 박수를 보내면서, 「머나먼 사랑」의 후편이 있다면, 고통의 세계가 좀더 진지하게 창조되어, 사람사는 세상이 설익은 화해보다는 상처를 마주보고 서로 씻김으로써 거듭날 수 있음을 훌륭하게 보여주기 바란다.

양희

서울시 노원구 상계8동 공무원 APT 1501동 1201호

‘인간없는’ 학교제도의 문제점

에버레트 라이머의 「학교는 죽었다」

아직까지도 전교조 파동이 가라앉지 않은 교육열 최고인 이 땅의 현실에서 에버레트 라이머의 「학교는 죽었다」는 드물게 보는 한편의 연구서이다.

이 책은 다양한 경력을 가진 미국의 교육학자 E. 라이머가 푸에르토리코 인력자원위원회, 진보를 위한 동맹, 국제문화자료센터 등에서 일하면서 15년의 짝지 않은 기간 동안 행한 토론과 대화끝에 이루어진 연구서로서, 모두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 학교를 왜 거부하는가, 2. 학교는 무엇을 하는가, 3. 학교는 무엇인가, 4. 학교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5. 학교의 기원, 6. 특권유지의 제도적 기반, 7. 민주적 제도는 가능한가, 8. 교육자원의 재조직, 9. 교육인력의 재조직, 10. 보편적 교육의 재정문제, 11. 교육의 혁명적 역할, 12. 평화혁명을 위한 전략, 13. 우리들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라는 각각의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이 책은 학교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이다.

라이머는 학교제도의 연구에 있어서, 구체적인 인간행위와 연관된 연구이기보다는 일반적인 연구방법을 선택해서 학교제도의 본질적인 측면을 파헤치고자 한다. 학교는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할 뿐 아니라 단순한 개선이나 개개인의 구체적인 경험을 넘어서는 전체의 측면을 보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에 입각한 라이머의 관찰에 의하면, 학교제도는 학교가 뒷받침하고 있는 사회제도나 사회구조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으며, 학교제도는 그 자체만으로는 혼자서 존립할 수 없는 기술사회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될 보조 역할을 담당할 뿐이다. 그래서 학교 제도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는 그 성격상 독자적

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반드시 사회구조의 혁명적인 변화를 전제한다는 것이 라이머의 시각이다.

이 연구서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에 대한 라이머의 따뜻한 시각이다. 라이머에 의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빵을 위해서 교육을 일찍 포기하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있는 자들보다 오히려 혜택을 덜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의 포기는 사회가 요구하는 일련의 자격을 상실하는 결과를 만들어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두에게 균등하게 돌아가지 않는 교육기회가 한 인간의 거의 모든 앞날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교육받은 정도에 따라 그 사람이 만나고 있고,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도 정해진다.

라이머도 인정하듯이 이 연구서의 내용이 물론 전부를 포괄할 수는 없다. 그리고 60년대의 현실을 모델로 한 연구가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질 수도 없다. 그러나 그렇듯 뚜렷한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라이머의 지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특히 어지러운 교육풍토와 사회구조의 불합리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이 땅의 현실에서는.

이승이

서울시 구로구 독산4동 1019-15 ·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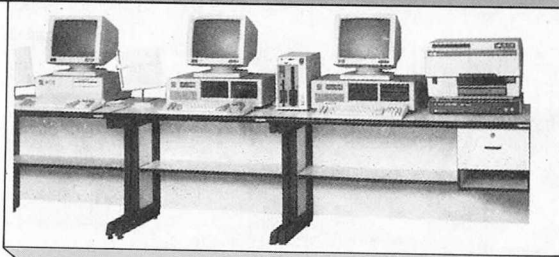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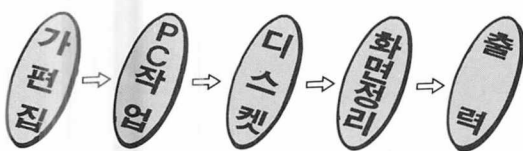
출판의 소식

출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돕겠습니다.

사식비를 줄이십시오!

PC로 입력하신 원고도 디스켓만 주시면 교정지나 인쇄지로 처리해 드립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십시오.



기획/편집/디자인 전문

M 밀알문화사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 2가 231-2
TEL. 268-5991/279-2626 FAX. 268-5991

전산 및 출력시스템

- 편집기능이 다양하며 화면에서 편집이 가능
- 작업기능이 신속하여 다량의 원고처리 가능
- 서식, 도표, 그래픽 등 그래픽 기능과 이미지 처리 가능
- 한글, 한문, 일어, 영어등과 서체, 굵기등을 자유선택
- 교정지(300, 600 LBP)로 교정후 인쇄지로 출력가능
- 인쇄지 출력이 불필요한 경우 포지필름으로도 출력가능
- 카다록등 고급 인쇄물제작 위해 수동식자기 보유

카렌다 / 카다록 / 박스 / 학위논문 / 식순지 / 사보 및 월간지 / 각종 안내장 / 단행본 및 전집류 / 각종 홍보물제작

